

# ‘영스타’가 연필로 되살린 추억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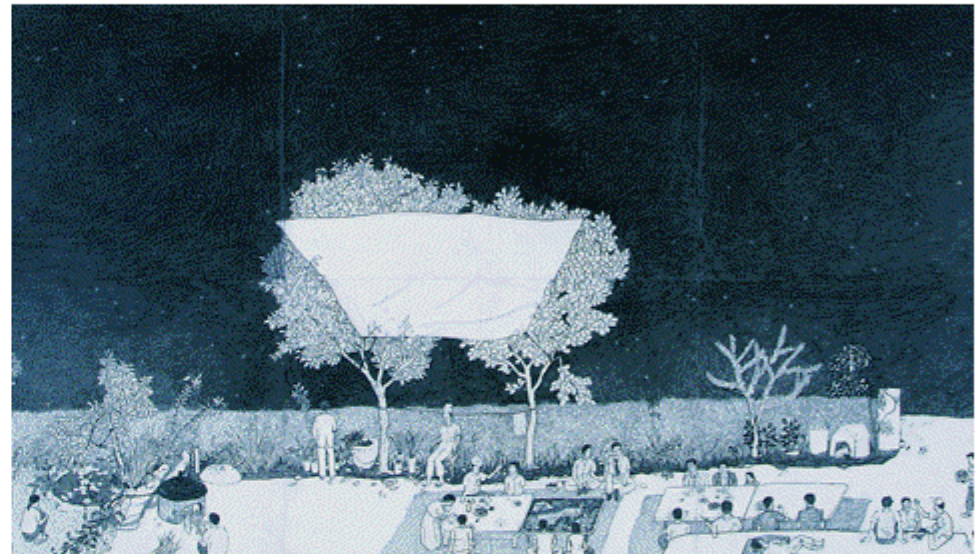
## 문성식 ‘풍경의 초상’展

■ 종이에 그린 연필화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그날 밤, 유난히 별이 반짝이던 여름밤 풍경을 담고 있다. 연필화로 서울 종로구 부암동 골목길이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묘사했다. 가로 7.5m의大作 ‘숲의 내부’는 종이에 아크릴물감으로 묘사한 흰 줄기의 자작나무 숲과 누런 낙엽들이 세밀한 연필화 같다.

서울 국제갤러리 본관에서 4월7일까지 ‘풍경의 초상’전을 통해 문성식(31)씨는 작가 주변의 풍경과 인물을 담아낸 드로잉을 선보인다. 본 작업의 밑그림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장르로서 드로잉이다. ‘젊은 작가’는 “전통화 속 먹처럼 연필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내 마음과도 잘 통하는 친숙한 소재”라며 연필화를 집중적으로 발표한다.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때 한국관 출품작가 15명 중 당시 최연소인 25세 대학원생으로 녹색풍경화를 선보이며 진작 미술가 영스타로 지목받은 화가다.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을 계기로 젊은 작가로서 부담스러울 만큼 미술가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그가 6년여 장고 끝에 마련한 본격 개인전이다.

젊은 작가로는 이례적으로 첨단미디어아트 시대에 오히려 전통의 재료인 연필로, 꼼꼼한 손작업을 통해 회화 그 자체에 집중해왔다. “노력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문득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그는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마치 사랑 만나듯 어느 날 툭 나온다”며 “1년에 3번 정도 운명처럼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

나를 일깨운 이미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수년 전 고향 김천 집에서 치렀던 할머니의 초상날이며, 한밤중 산속 울무에 걸린 고라니의 울음을 비롯, 이국적인 자작나무 숲 및 숲의 길목에서 느끼는 묘한 긴장과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이 작품에 오롯이 담겨 있다. ‘별과 소쩍새...’의 경우, 처음엔 스케치북 만한 종이 그림으로 출발했으나 묘하게 강렬하던 그날 별밤의 분위기를 되살려내기 위해 5장의 그림을 추가해 현재 크기로 확대됐다. “사진을 보고 그리면 오히려 대상 표현이 어려워요.” 작가는 전시장 1층의 대형 숲 그림과 온통 검정인 부암동 밤 풍경 등을 밑그림도 없이 시작해 이미지를 확장시켜 표현했다. 1층 계단 쪽 벽면과 2층 가득한 연필그림에는 작가가 일기 쓰듯, 대상을 연구하듯 오랜 시간 공들여 그은 이미지가 흑백영화처럼 펼쳐진다.